

Kimjunseo×BoraLee

Dorothy M Yoon

PARK, Seong Jun

Studio SOOBOX × Tissue Office × pyopyo

STUDIO ARTECH

DAPHNE JIYEON JANG

IVAAIU CITY

korinsky/seo × Orhan "aib" Kavrakoğlu

oOps.50656

Psients × Jeffrey Kim

C R O S S I N G

2022

PARADISE
ART
LAB+



PARADISE
CULTURAL FOUNDATION

06. 23. THU - 09. 05. MON @PARADISE CITY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술활동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예술가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그들의 독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장르를 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복합문화공간사업, 언버벌 비주얼쇼(non-verbal visual show) 콘텐츠 발굴 육성사업, 창·제작 지원사업 파라다이스 아트랩 등 매년 지원사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물질의 지원을 넘어서 문화예술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문화예술의 풍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The Paradise Cultural Foundation provides soil for artists contributing to humanity through creative and future-oriented artistic activities, and supports their creative activities.

Based on the founding philosophy of the Cultural Foundation, the Paradise Cultural Foundation has been carrying out support projects for all fields of culture and arts without limiting the genre until today and expanding the range of support projects every year, such as a multi-complex cultural space project, a non-verbal visual show content discovery and promotion project, and Paradise Art Lab, which is a creation and production support project.

The Paradise Cultural Foundation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sperous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our lives by becoming a reliable supporter that helps expanding the network of culture and arts beyond material support.

GREETING

2019년 첫 쇼케이스를 선보였던 파라다이스 아트랩이 어느새 3회를 맞았습니다. 쇼케이스에서 페스티벌로 성장했고, 규모와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제 'CROSSING'은 이런 경계의 시대, 예술이 할 일에 대한 파라다이스 아트랩의 대답입니다.

파라다이스시티 곳곳에 펼쳐진 예술 작품들이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기를,
예술을 체험하는 수준을 넘어 예술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음악 공연, 토크 프로그램이 즐거움을 드리기를,
키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기를,
컬처파크에서의 피크닉이 여유를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5월, 저희가 준비한 열흘간의 특별한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Since 2019 the first showcase, Paradise Art Lab is celebrating its third year. It has grown from a showcase to a festival and has become richer in both its scale and programming. In the meantime, our normal daily lives have gone through the long tunnel of the pandemic. And now we are greeting the life of post-COVID.

This year's theme CROSSING is Paradise Art Lab's answer to what art should do in this era of boundaries.

May the works of art spread throughout Paradise City awaken your senses! I hope you experience art beyond watching it but being in it. I expect the music performances and talk programs to bring you joy and the kids program to inspire children's artistic imagination. Lastly, I believe the picnic at Culture Park will give you time to relax.

This May, please enjoy the special 10 days of spring we have prepared.

PARADISE ART LAB

ABOUT

01

Theme

예술 + 기술
Art & Technology

02

작품 제작 지원 Support for Art Projects

장르 경계 없는 예술
신작/재창작 작품 지원
Art with no genre limitation
Original and redesigned works support

03

예술 영역 확장 Expansion of Art Scope

예술가 창작활동 기회 확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미래 제안
Various creative initiative opportunities for artists,
Proposing new future of cultural arts

04

관객 향유 확대 More Audience Enjoyment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 제공
New experience and inspiration to audience

PROCESS



사업운영 Business Operation

최윤정 이사장 Choi Yoon Jung Chairperson
김영종 사무국장 Kim Young Jong Corporate Bureau, Director
김진희 문화사업팀장 Kim Genie Culture Business Team Manager
최원정 기획PD Choi Won Jung Creative Producer
최수영 Choi Sooyoung
권한아 Kwon Han Ah
신유림 Shin Yurim

주최/주관		
테크니컬		브랜딩
홍보		통합마케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관광공사 Incheon Airport 한국메세나협회 사랑의열매
협력	서울문화재단	
협찬	LUSH FRESH COSMETICS 	리츠 Technics

CROSSING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와 미래의 교차지점에서
예술의 리얼과 언리얼을 횡단합니다.

여기에서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경계에 놓인 예술가의 시선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을 느낍니다.
새로운 감각을 일깨웁니다.

곧 괜찮은 미래가 도래한다는 상상을 주고 받습니다.

We finally cross again.

Now
at the crossing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we cross the Real and Unreal of Art.

Here, we ask after each other through communication and communion.
We stare at the eyes of artists standing on the boundaries,
listen to music, talk to each other, and appreciate nature.
It awakens new senses.

We share our imagination that a decent future
may arrive soon.

FESTIVAL MAP

운영 시간

22. 05. 20 - 05. 29

월요일 - 금요일 | 11:00 - 19:00

*야외 작품의 경우 21:00까지 관람 가능

토요일 - 일요일 | 11:00 - 21:00

장소

파라다이스시티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컬처파크

크로마 / 크로마 스퀘어

플라자 / 아트 스페이스

①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② 컬처파크

③ 크로마 / 크로마 스퀘어

④ 플라자 / 아트 스페이스

● INFORMATION

● STAGE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 STUDIO PARADISE

ARTWORK

김준서×보라리 Kimjunseo×BoraLee [난외(欄外)_Marginal]

도시시엠윤 Dorothy M Yoon [원원의 색동 요술봉 탑_Tower of Wishful Saekdong Magic Wands]

박성준 Park, Seong Jun [오, 리플리_Oh, Ripley]

스튜디오 아텍 STUDIO ARTECH [하드포크_HARD FORK]

장지연 DAPHNE JIYEON JANG [화해한 영광_Reconciled Glory]

Psients × Jeffrey Kim [Signal]

컬처파크 | CULTURE PARK

ARTWORK

IVAAIU CITY [Interplanetary Light Code - Model 2] | 매일 11:00 - 21:00

BUSKING

김제형 | 라쿠나 | 워아더나잇 | 제이유나 | 프롬 | 헤온 | CHS | THE GOOD DAYS BOYS

PAL TALK

김겨울 | 김초엽

크로마 / 크로마 스퀘어 | CHROMA / CHROMA SQUARE

ARTWORK

장지연 DAPHNE JIYEON JANG [화해한 영광_Reconciled Glory] | 매일 19:00 - 21:00

oOps.50656 [Organotopia .that whales walk at whales]

LIVE PERFORMANCE

oOps.50656 [Organotopia]

플라자 / 아트 스페이스 | PLAZA / ART SPACE

ARTWORK

스튜디오 수박 × 티슈오피스 × 표표 Studio SOOBOX × Tissue Office × pyopyo

[Perfect Family.Inc 쇼케이스_Perfect Family.Inc Show Case]

korinsky/seo × Orhan "aib" Kavrakođlu [white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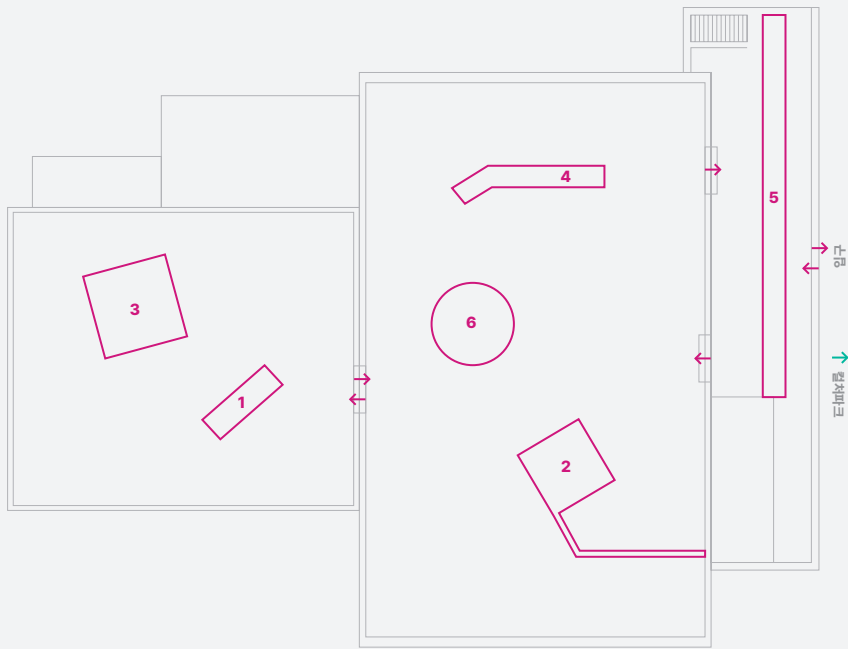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unfold X - 기묘한 공간] / 이재형 Lee Jaehyung

KIDS LAB

파나소닉 코리아 × 스튜디오 아텍

KIDS PROGRAM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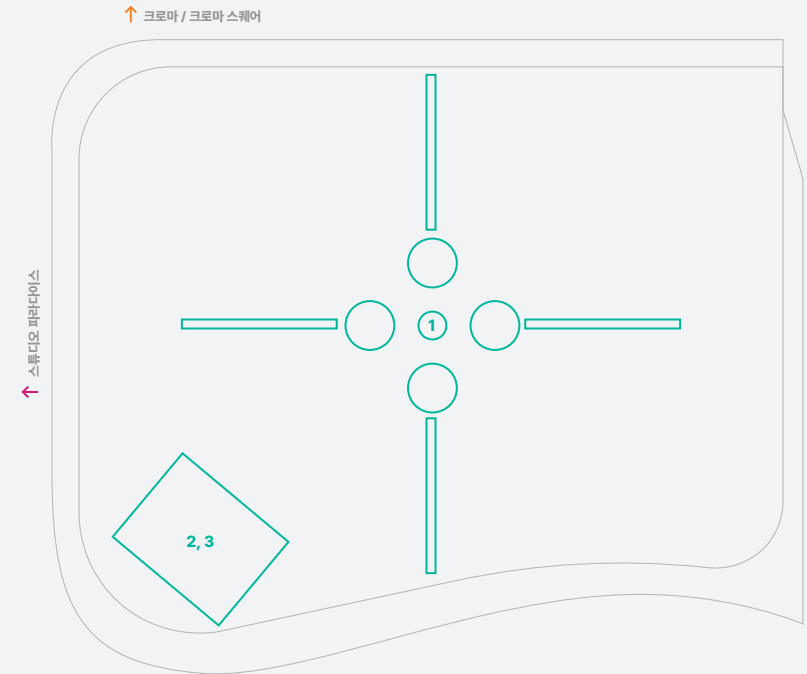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 STUDIO PARADISE

ARTWORK

1. 김준서×보라리 Kimjunseo×BoraLee [난외(欄外)_Marginal]
2. 도시시엠윤 Dorothy M Yoon [염원의 색동 요술봉 탑_Tower of Wishful Saekdong Magic Wands]
3. 박성준 Park, Seong Jun [오, 리플리_Oh, Ripley]
4. 스튜디오 아텍 STUDIO ARTECH [하드포크_HARD FORK]
5. 장지연 DAPHNE JIYEON JANG [화해한 영광_Reconciled Glory]
6. Psients × Jeffrey Kim [Signal]

컬처파크



컬처파크 | CULTURE PARK

ARTWORK

1. IVAAIU CITY [Interplanetary Light Code - Model 2] | 매일 11:00 -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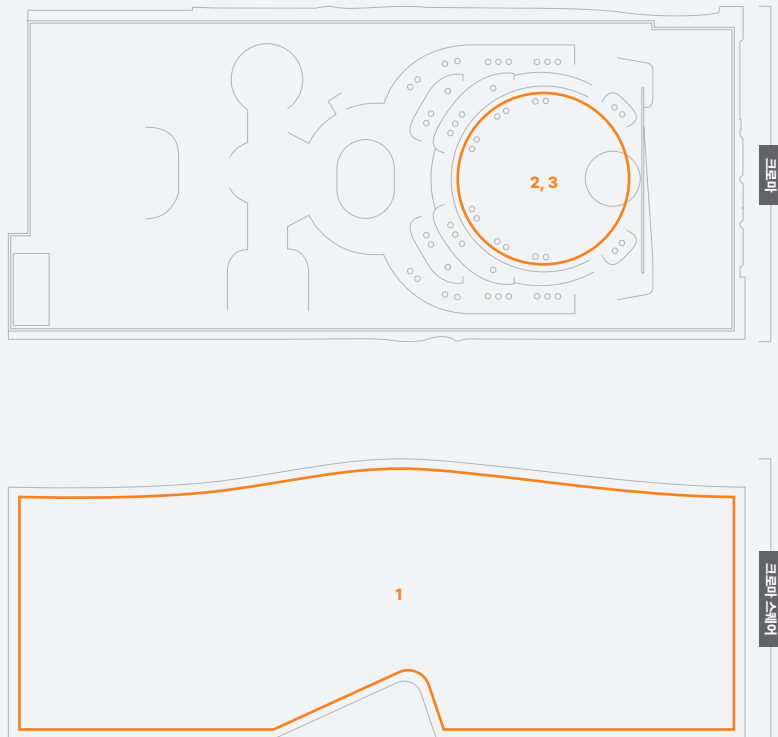
BUSKING

2. 김제형 | 라쿠나 | 위아더나잇 | 제이유나 | 프롬
헤온 | CHS | THE GOOD DAYS BOYS

PAL TALK

3. 김겨울 | 김초엽

크로마 / 크로마 스퀘어



크로마 / 크로마 스퀘어 | CHROMA / CHROMA 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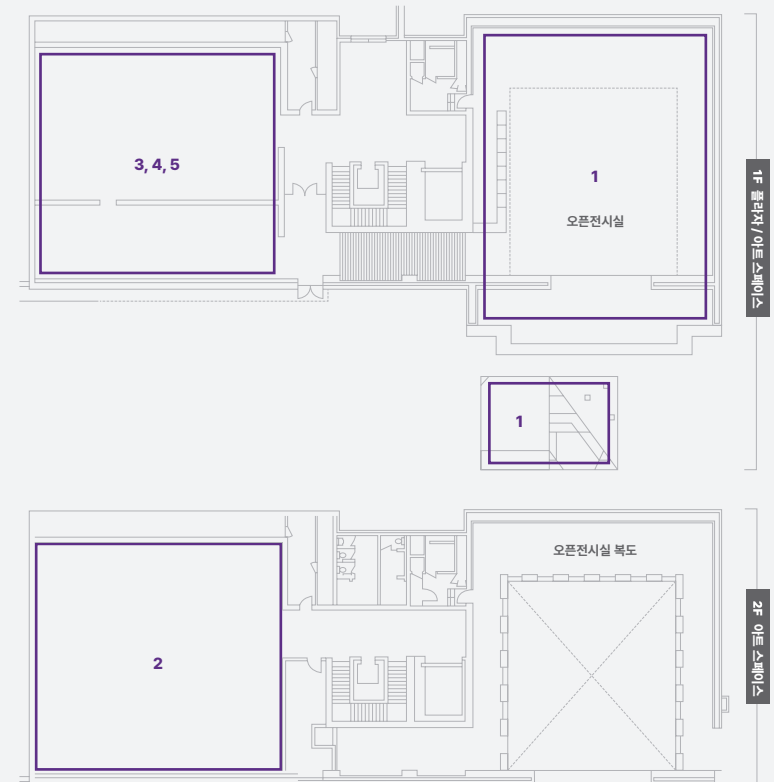
ARTWORK

1. 장지연 DAPHNE JIYEON JANG [화해한 영광_Reconciled Glory] | 매일 19:00 - 21:00
2. oOps.50656 [Organotopia .that whales walk at whales]

LIVE PERFORMANCE

3. oOps.50656 [Organotopia]

플라자 / 아트 스페이스



플라자 / 아트 스페이스 | PLAZA / ART SPACE

ARTWORK

1. 스튜디오 수박 × 티슈오피스 × 표표 Studio SOOBOX × Tissue Office × pyopyo
[Perfect Family.Inc 쇼케이스_Perfect Family.Inc Show Case]
2. korinsky/seo × Orhan "aib" Kavrakođlu [whiteout]
3. 서울문화재단 [unfold X - 기묘한 공간] / 이재형 LeeJaehyung

KIDS LAB

4. 파나소닉 코리아 × 스튜디오 아텍
5. KIDS PROGRAM

TIME TABLE

	5.20 금	5.21 토	5.22 일	5.23 월	5.24 화
	키즈 프로그램				
11:00	아티스트 투어 스튜디오 아텍		아티스트 투어 korinsky/seο × Orhan "aib" Kavrakoglu	특잇-미 스튜디오 수박 × 티슈오피스 × 표표	
12:00					
13:00	특잇-미 스튜디오 아텍	특잇-미 장지연	특잇-미 korinsky/seο × Orhan "aib" Kavrakoglu		특잇-미 박성준
14:00		아티스트 연구실 장지연	댄스 퍼포먼스 김설진		
15:00	버스킹 김제형	라이브 퍼포먼스 oOps.50656	버스킹 CHS		
16:00		PAL TALK 김초엽	PAL TALK 김겨울		
17:00		버스킹 제이유나	버스킹 라쿠나		
18:00		아티스트 투어 장지연			
19:00		라이브 퍼포먼스 oOps.50656			
20:00 -21:00					

아티스트 투어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PAL 아티스트가 직접 설명해주는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작품 이야기

특잇-미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PAL 아티스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

라이브 퍼포먼스
크로마

PAL 아티스트의 오디오 비주얼 라이브 퍼포먼스

PAL TALK
컬처파크

2022 PAL 페스티벌의 주제 'CROSSING'에 대한 스타 작가의 토크 프로그램

키즈 프로그램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어린이들을 위한 10작품, 10교실

	5.25 수	5.26 목	5.27 금	5.28 토	5.29 일	
	키즈 프로그램					
		아티스트 투어 Psients × Jeffrey Kim	아티스트 투어 IVAAIU CITY	아티스트 투어 oOps.50656	아티스트 투어 김준서×보라리	11:00
						12:00
	특잇-미 도로시임윤	특잇-미 Psients × Jeffrey Kim	특잇-미 IVAAIU CITY	특잇-미 oOps.50656	특잇-미 김준서×보라리	13:00
		아티스트 연구실 Psients × Jeffrey Kim	아티스트 연구실 IVAAIU CITY		아티스트 연구실 김준서×보라리	14:00
				버스킹 헤은	버스킹 THE GOOD DAYS BOYS	15:00
				라이브 퍼포먼스 oOps.50656	라이브 퍼포먼스 oOps.50656	16:00
				버스킹 프름	버스킹 위아더나잇	17:00
						18:00
				라이브 퍼포먼스 oOps.50656	스페셜 퍼포먼스 IVAAIU CITY Psients oOps.50656	19:00
						20:00 -21:00

버스킹
컬처파크

주말마다 잔디밭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뮤지션의 음악 공연

댄스 퍼포먼스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무버 예술감독 '김설진'의 아트 인터랙티브 라이브 퍼포먼스

아티스트 연구실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PAL 아티스트가 직접 보여주는 아트&테크 작업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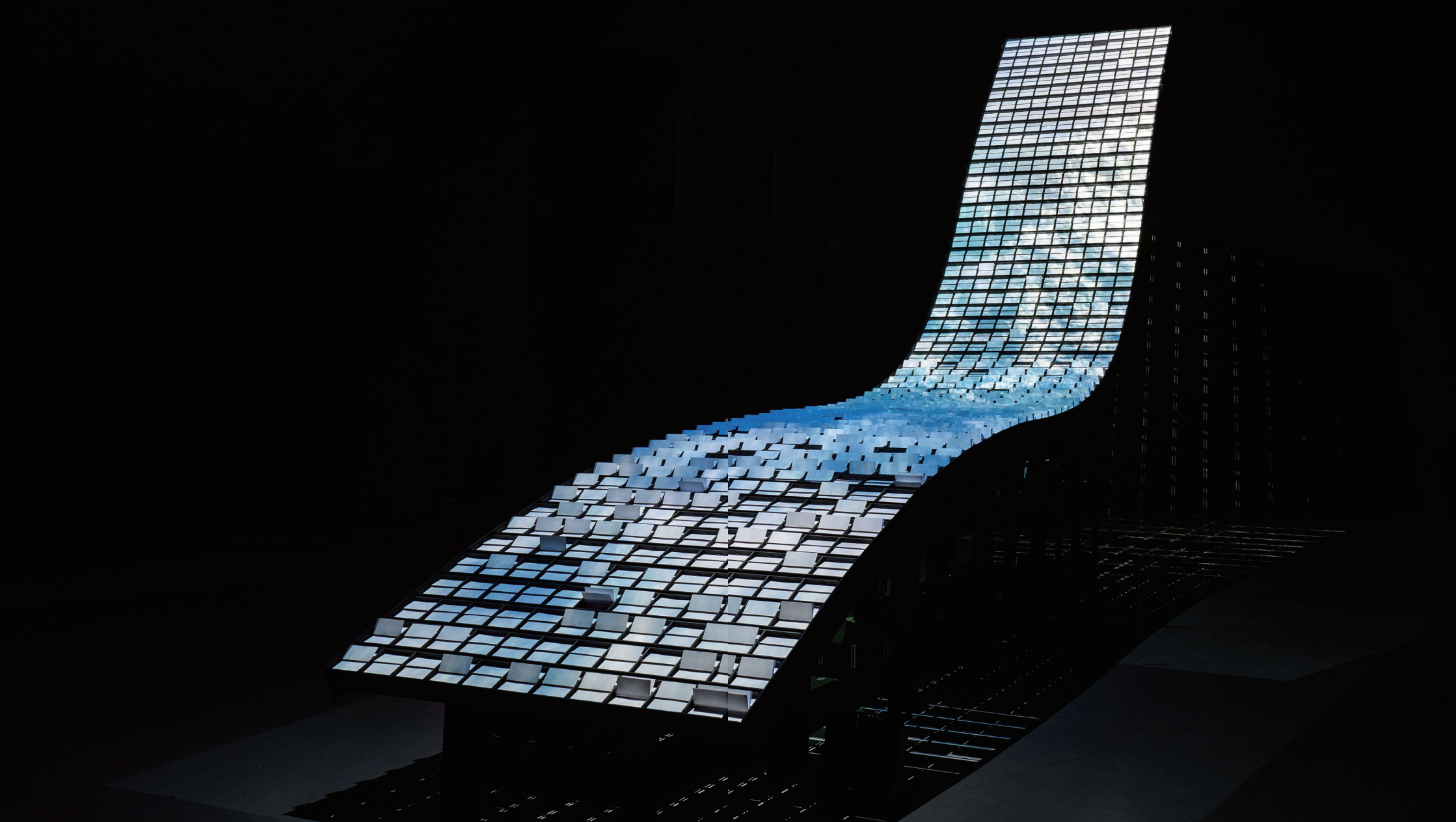
스페셜 퍼포먼스
컬처파크

페스티벌의 폐막을 장식하는 PAL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11:00 - 19:00 * 야외 작품의 경우 21:00까지 관람 가능
토요일 - 일요일 | 11:00 - 21:00

파라다이스시티 내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크로마, 컬처파크, 플라자에서 11개 작품 상시 관람 가능



01

난외(欄外) Marginal

김준서X보라리 KimjunseoXBoraLee

01

난외(欄外)

김준서×보라리

작품위치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아티스트 투어 5월 29일 일요일 11:00 - 12: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톡톡-미 5월 29일 일요일 13:00 - 14: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아티스트 연구실 5월 29일 일요일 14:00 - 15: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작품소개

<난외>는 정지한 듯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의 물성을 표현한 미디어 설치 작품이다. 한 개의 모듈에는 12장의 종이 날개가 들어가있다. 7,000개 이상의 종이 날개를 이어 붙여 웅장한 물의 움직임과 속성을 연출한다. 두루마리 형태의 거대한 조형은 인간의 시각 범위를 뛰어넘어 각각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연장한다. 정지된 이미지 아래 각각의 모듈은 다른 차원의 시간을 확보하고, 다른 기억을 저장하며, 현재를 끊임없이 재생시킨다. 이 작품은 기계적으로 재현된 자연의 물성이 인간의 감각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보여주는 시도이다.

작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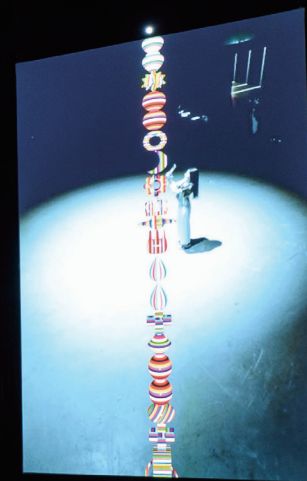
김준서×보라리는 미디어 작가 김준서와 설치작가 보라리로 구성된 팀으로 맥락적 해석의 치밀함을 넘어서서 개입과 실천의 예술적 실험을 추구한다. 김준서, 보라리는 MZ의 시작 세대로 아날로그 향수를 가진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다. 기록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생각 방식의 혁명을 경험한 두 작가는 기술과 인간 감각의 접점을 극대화하는 예술적 자극을 연구하고 있다.

Marginal

Kimjunseo×BoraLee

<Marginal> is a media installation that depicts the movement of water that appears to be stationary but endlessly moving. A single module contains 12 paper wings. Over 7,000 paper wings are woven together, representing the magnificent movements and features of water. The enormous scroll-shaped sculpture extends the human senses beyond the human field of vision through each movement. Under the still image, each module preserves a different dimension of time, retains different memories, and constantly replays the present. This work attempts to demonstrate how the mechanically reproduced properties of nature broaden human senses.

Kimjunseo×BoraLee is a collaborative duo, consisting of media artist Kim Junseo and installation artist Bora Lee, who explores artistic experimentation in intervention and practice beyond the meticulousness of contextual interpretation. Kim Junseo and Bora Lee are early members of the Millennial and Gen Z, digital generations with analog nostalgia. Having experienced the revolution in the way of thinking brought by the changes in recording technology, the two artists investigate artistic stimuli that can expand human senses with an interest in the interface between technology and human senses.



02

염원의 색동 요술봉 탑 Tower of the Wishful Saekdong Magic Wands

도로서염윤 Dorothy M Yoon

02

염원의 색동 요술봉 탑

도로시옌윤

작품위치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특잇-미 5월 25일 수요일 13:00 - 14: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작품소개

<염원의 색동 요술봉 탑>은 인터랙티브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관객의 경험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다. 작가가 과거 암 투병 중 겪었던 초현실적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과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제시한다.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색동은 삼국시대부터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복을 기원하는 영매 역할을 했고, 요술봉은 염원을 구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관객은 가상공간에서 색동 요술봉이 지닌 과거의 주술적 기원을 통해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뉴 테크놀로지적 체험을 하게 된다. 모두의 현재 소망이 한데 모여 탑을 이루고 미래의 우주를 향해 오른다. 이 공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축복의 기회를 맞이한다.

작가소개

도로시옌윤은 이화여대 조소과와 런던 골드 스미스 대학원에서 순수예술학과를 졸업하고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스와치 파블리온>에서 "THIS MOMENT IS MAGIC"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이탈리아 보그와 미국 포브스에 소개됐다. 다양한 범주의 대치점과 경계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으며 항암 약물 치료 중 보았던 색동 요술봉을 매개로 자수 작업부터 AR, VR 등의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0, 2021년 아르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최종 결과물을 발표했다.

AR 개발자 황지원 백엔드 개발자 권영린
 UI/UX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개발자 권보미 3D 애니메이터 장현욱
 3D 그래픽 디자이너 김희동 사운드 김다빈 디자인 최하은 고문 허대찬, 이다영

Tower of the Wishful Saekdong Magic Wands

Dorothy M Yoon

The <Tower of Wishful Saekdong Magic Wands> is a new interactive project utilizing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Based on surreal memories and experiences from her struggle with cancer in the past, the artist presents a virtual space where she can share hope and energy. Saekdong, which is the motif of the work, has served as a spiritual medium connecting heaven and earth to wish for happiness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magic wand has been used as a tool to realize the wish. To begin, use your mobile phone to scan the QR code located outside the space. This will allow you to access the virtual space. In this space, you will experience a new technology encompassing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rough the magical wish from the past that the Saekdong magic wand carries. Make a wish with the magic wand you made, and everyone's wishes come together to form a tower and go on a journey to the future universe. This space will find a blessing opportunity to bridg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Dorothy M Yoon is a graduate of Ewha Womans University's Department of Sculpture and Goldsmiths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Fine Arts in London. In 2019, she presented her project "THIS MOMENT IS MAGIC" at the Venice Biennale <Swatch Pavilion> and was featured in Vogue Italy and Forbes USA. She is interested in the intersections and boundaries of various categories, and she has been experimenting with the merging of art and technology, from embroidered work to AR and VR, using the Saekdong magic wand she saw during her anticancer medication treatment as the medium for her works. She was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Arko Art and Technology Convergence Support Project in 2020 and 2021, and presented her final artwork.

AR Developer Jiwon Hwang Back End Developer Younglin Kwon
 UI/UX Designer, Front End Developer Bomi Kwon Modeler/Animator Hyeonuk Jang
 3D Graphic Designer Heedong Kim Sound Dabin Kim Design Haeun Choi Adviser Daechan Heo, Dayoung Lee



03

오, 리플리 Oh, Ripley

박성준 PARK, Seong Jun

03

오, 리플리

박성준

작품위치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특잇-미 5월 24일 화요일 13:00 - 14: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작품소개

오, 리플리! : '전부 오해야. 사랑하니까 믿는 거야.'

인간의 욕망은 환상을 만들어 내고 때론 현실과 구분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나 허구를 믿게 만든다. 남을 속이기에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기에다 충분하며 그러다 찾아올 비극에 '오해'라 말한다. 이 작품은 관람자가 실제/현실과 가상/허구의 경계에서 시청각적인 일루전(illusion)을 경험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설치이자 공연이다. 마치 연극 무대 혹은 영화 세트장 같은 공간에서 관람객이 갖가지 인터랙티브 장치(센서에 의해 반응하는 무대효과 및 사운드)에 의해 낯선 경험을 하며 관람자이자 주인공으로 미스터리한 서사를 하나씩 맞추어 가는 것을 의도한다.

작가소개

박성준은 영화/영상, 인터랙티브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작업을 통해 인간의 관념과 실재사이의 부조리를 탐구해왔다. 영상언어를 해체하거나 조합해 실재와 다른 혼돈과 괴리의 공간을 보여주는 그의 설치물은 마치 무대 혹은 세트장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재현(representation) 되어 인간의 욕망과 불안의 갈등을 영화적 내러티브로 드러낸다.

배우 이재환, 최혜정, 정환욱 **사운드 디자인** 류기화
음악 이재형 음악감독(작곡: 이재형, 배재영, 신도휘)
공간&소품 디자인 양승우 대표(MAKE studio), 이은규 무대감독

Oh, Ripley

PARK, Seong Jun

Oh, Ripley! : 'It's all a misunderstanding. Trust comes when there's love.'

Human desires create illusions and sometimes appear indistinguishable from reality, leading to belief in the fake. It is enough to deceive others and oneself, and say that the tragedy that will come is a "misunderstanding". This work is a performance and interactive installation that allows viewers to experience visual-illusory effects at the border between existence/reality and imaginary/fake. It aims to make the audience feel as if they are on a theatrical stage or a film set, having a surreal experience as a spectator and protagonist through engagement with a variety of interactive devices(stage effects and sounds triggered by sensors) to piece together the puzzles of a mysterious narrative one by one.

PARK, Seong Jun has investigated the absurdity that exists between human conceptions and reality using film/video, interactive installations, and media performances. His installations, which deconstruct or juxtapose visual language to depict a realm of chaos and disparity that differs from reality, are presented/represented in a staged or set-like appearance, conveying the tension between human desires and anxieties through a cinematic narrative.

Actor Jaehwan Lee, Hyejeong Choi, Hwanwook Jung **Sound Design** Kihwa Rhyu
Music Jaehyoung Lee(Composition : Jaehyoung Lee, Jaeyoung Bae, Dohwi Shin)
Space & Props Seungwoo Yang(Make Studio CEO), Eunky Lee(Stage Manager)



04

Perfect Family.Inc 쇼케이스

스튜디오 수박 × 티슈오피스 × 표표

작품위치 @플라자 / 아트스페이스

특잇-미 5월 23일 월요일 11:00 - 12:00 @플라자 / 아트 스페이스

작품소개

<(주)퍼펙트패밀리>는 1인 가구와 비혈연 미래 가족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회사이다. 2022년, 티슈오피스의 메타버스 앱 '히든 오더'에 본사 "메타 파라다이스" 월드를 오픈했다. 웹 설문 '모여살래요?'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미래의 비혈연 가족을 매칭하고 그들을 위한 가족협동조합 타운(공동주택 설계)을 가상공간에서 제공한다. '나의 장례식', '역할대행을 위한 변신술', '멘탈케어', '복수하기' 서비스는 게임 방식으로 선보이고, 이 중 일부는 실제 기업 (유품정리사, 정신과 상담)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번 2022 PAL Festival에서는 '자기 대여'를 포함한 가족, 친구 대여, 각종 상황극 서비스를 퍼포먼스로 제공하고, '30분 친구 대여' 서비스를 통해 페스티벌 메이트를 구할 수 있다.

작가소개

<(주)퍼펙트패밀리>는 2019년 박혜수 작가가 선보인 가짜 가족을 제공하는 가상기업으로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비판하기 위해 시작했다. 2021년 이 가상 회사의 서비스를 가상공간에서 선보이기로 기획하고, 인문학적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드는 티슈 오피스가 운영 중인 메타버스 앱 '히든오더'에 본사 '메타파라다이스'를 설립했다. 특히 본사 '메타파라다이스'와 가족협동조합 'artPET 타운' 설계를 표표 건축사무소가 디자인했다.

기획 박혜수 메타버스 제작 티슈오피스 건축 설계 표표

광고 제작 미디어스코프 배우/퍼포머 박시호, 안부, 정순욱, 서지원

협찬/후원/지원 서울문화재단 2021년 코로나19 예술지원 Art Must Go On 선정 사업, 서울시

Perfect Family.Inc Show Case

Studio SOOBOX × Tissue Office × pyopyo

The <Perfect Family.Inc> is a virtual company that provides a variety of services to single-person households and non-kin-related-future-family-communities. The corporation established its "Meta Paradise" World Headquarters in 2022 on Tissue Office's Metaverse app, the 'Hidden Order.' Through the web survey 'Want to live together?' we match our customers with potential non-kin families and provide them with a family cooperative town in the virtual space. "My Funeral", "Transformation for Role Acting", "Mental Care" and "Taking Revenge" services are presented as games, with some of these linked to real-world businesses(e.g., keepsake organizers, psychiatrists). During PAL Festival 2022, <Perfect Family.Inc Showcase> offers a variety of situational services for renting families and friends, including 'self-rentals' as performances, and you can acquire a festival mate via the '30-Minute Friend Rental' service.

The <Perfect Family.Inc> was founded in 2019 as a virtual company that creates fictional families presented by artist Hyesoo Park to challenge the patriarchal family system in Korean society. In 2021, the company planned to provide the virtual company's services in a virtual space and built its headquarters "Meta Paradise" in the metaverse app "Hidden Order", which is run by Tissue Office, which develops game based on humanistic thoughts and reflections. The pyopyo Architecture Office designed the "Meta Paradise" headquarters and the "artPET Town" family cooperative.

Artist Hyesoo Park Metaverse Design & Development Tissue Office Construction Design pyopyo

Advertising Production Media Scope Actors/Performers Si-ho Park, Ahnbu, Soon Wook Jung, Jiwon Seo

Support Seoul Cit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2021 Corona 19 Art Support

<ART MUST GO ON> Selected Work)



HARD FORK

by STUDIO ARTECH

하드포크란? 프로그래밍에서 원본을 통째로 복사하여,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이에 빗대어 우리의 일상을 디지털로 통째로 복사,
올리고 있는 예술들이 '하드포크'의 모습을 갖고 정리하였습니다.

스튜디오 아텍은 이번 전시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유도하고자
가상공간에 최적화된 인터랙티브 디자인도 공간에 부여하는
공간감각적인 디지털 기반 서비스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HARD FORK

권승중

HARD FORK #458

010-888-8888

02-1234-5678

03-9876-5432

04-3210-9876

05-6543-2109

06-9876-5432

07-3210-9876

08-6543-2109

09-9876-5432

10-3210-9876

11-6543-2109

12-9876-5432

13-3210-9876

14-6543-2109

15-9876-5432

16-3210-9876

17-6543-2109

18-9876-5432

19-3210-9876

20-6543-2109

21-9876-5432

22-3210-9876

23-6543-2109

24-9876-5432

25-3210-9876

26-6543-2109

27-9876-5432

28-3210-9876

29-6543-2109

30-9876-5432

31-3210-9876

32-6543-2109

33-9876-5432

34-3210-9876

35-6543-2109

36-9876-5432

37-3210-9876

38-6543-2109

39-9876-5432

40-3210-9876

41-6543-2109

42-9876-5432

43-3210-9876

44-6543-2109

45-9876-5432

46-3210-9876

47-6543-2109

48-9876-5432

49-3210-9876

50-6543-2109

51-9876-5432

52-3210-9876

53-6543-2109

54-9876-5432

55-3210-9876

56-6543-2109

57-9876-5432

58-3210-9876

59-6543-2109

60-9876-5432

61-3210-9876

62-6543-2109

63-9876-5432

64-3210-9876

65-6543-2109

66-9876-5432

67-3210-9876

68-6543-2109

69-9876-5432

70-3210-9876

71-6543-2109

72-9876-5432

73-3210-9876

74-6543-2109

75-9876-5432

76-3210-9876

77-6543-2109

78-9876-5432

79-3210-9876

80-6543-2109

81-9876-5432

82-3210-9876

83-6543-2109

84-9876-5432

85-3210-9876

86-6543-2109

87-9876-5432

88-3210-9876

89-6543-2109

90-9876-5432

91-3210-9876

92-6543-2109

93-9876-5432

94-3210-9876

95-6543-2109

96-9876-5432

97-3210-9876

98-6543-2109

99-9876-5432

100-3210-9876

HARD FORK #458

010-888-8888

02-1234-5678

03-9876-5432

04-3210-9876

05-6543-2109

06-9876-5432

07-3210-9876

08-6543-2109

09-9876-5432

10-3210-9876

11-6543-2109

12-9876-5432

13-3210-9876

14-6543-2109

15-9876-5432

16-3210-9876

17-6543-2109

18-9876-5432

19-3210-9876

20-6543-2109

21-9876-5432

22-3210-9876

23-6543-2109

24-9876-5432

25-3210-9876

26-6543-2109

27-9876-5432

28-3210-9876

29-6543-2109

30-9876-5432

31-3210-9876

32-6543-2109

33-9876-5432

34-3210-9876

35-6543-2109

36-9876-5432

37-3210-9876

38-6543-2109

39-9876-5432

40-3210-9876

41-6543-2109

42-9876-5432

43-3210-9876

44-6543-2109

45-9876-5432

46-3210-9876

47-6543-2109

48-9876-5432

49-3210-9876

50-6543-2109

51-9876-5432

52-3210-9876

53-6543-2109

54-9876-5432

55-3210-9876

56-6543-2109

57-9876-5432

58-3210-9876

59-6543-2109

60-9876-5432

61-3210-9876

62-6543-2109

63-9876-5432

64-3210-9876

65-6543-2109

66-9876-5432

67-3210-9876

68-6543-2109

69-9876-5432

70-3210-9876

71-6543-2109

72-9876-5432

73-3210-9876

74-6543-2109

75-9876-5432

76-3210-9876

77-6543-2109

78-9876-5432

79-3210-9876

80-6543-2109

81-9876-5432

82-3210-9876

83-6543-2109

84-9876-5432

85-3210-9876

86-6543-2109

87-9876-5432

88-3210-9876

89-6543-2109

90-9876-5432

91-3210-9876

92-6543-2109

93-9876-5432

94-3210-9876

95-6543-2109

96-9876-5432

97-3210-9876

98-6543-2109

99-9876-5432

100-3210-9876

05

하드포크

스튜디오 아텍

작품위치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아티스트 투어 5월 20일 금요일 11:00 - 12: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톡잇-미 5월 20일 금요일 13:00 - 14: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작품소개

디지털격차, 기술 양극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편안하고 즐겁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작업을 기획했다. <하드포크>는 식기구 '포크'의 형태처럼 하나의 중심축에서 세 갈래로 나누어지듯 기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통째로 복사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뜻의 개발 언어이다. 물리적 일상을 디지털로 복사하듯 옮기는 현대사회의 행태가 '하드포크'와 닮아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출발한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관람객의 모습을 하드포크하여 디지털 공간(메타버스)에 재배치하고 관람객이 떠난 후에도 디지털 자아는 작품 안을 부유한다. 디지털 상호작용 접점을 통해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작가소개

스튜디오 아텍은 '기술이라는 펜을 쥐고 예술을 그린다.'

블록체인, AI, 데이터 시각화, 하드웨어 모듈 제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미디어아트 디자인을 하고 있다. 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그래픽을 만들고 어떻게 시민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 이를 통해 기술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과정을 시민들과 나누기를 원한다.

미디어아트 기획/제작/디렉팅 스튜디오 아텍(김성필, 박문석)

개발협업 정준희 사운드 협업 AIRAIR

HARD FORK

STUDIO ARTECH

STUDIO ARTECH has prepared this work in the hope to resolve digital gaps and technology polarization so everyone can easily access and enjoy it. <HARD FORK> is a programming language that allows you to create new software by duplicating the full original source code, as if it wer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on a central axis, much like a table "fork". The piece started out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behavior of the modern society that copies physical daily life to the digital world resembles "hard fork". By hard-forking the festival attendees and moving them into the digital space(metaverse), the digital self remains to hover in the artwork long after the attendees leave. Through digital interaction touchpoints, it provides spatial-sensory experiences.

STUDIO ARTECH 'draws art with a pen called "technology" in their hands.'

Using blockchain, AI, data visualization, hardware module control, and other technologies, the artists produces media art that creates beautiful harmony in the daily lives of citizens. The creators continuously think of what graphic representations they can create and how they can engage with the citizens using technology, and how the citizens can enjoy their creations. They hope to share what role technology plays in our lives and what it means to us with the citizens.

Media art production/directing Studio Artech(Sung-pil Kim, Munsok Park)

Development collaboration Junhee Jung Sound collaboration AIRAIR



06

화해한 영광

장지연

작품위치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크로마 스퀘어

특잇-미 5월 21일 토요일 13:00 - 14: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아티스트 연구실 5월 21일 토요일 14:00 - 15: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아티스트 투어 5월 21일 토요일 18:00 - 19: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작품소개

<화해한 영광>은 문화재 반환과 보상에 대한 이슈로 영국과 그리스 국가 간에 오가는 긴장감에 주목한다. 영국 대영박물관의 가장 큰 관객몰이를 하는 '엘긴 마블스'로 더욱 알려진 그리스의 '파르테논 마블스'는 오스만 제국 시절 영국으로 몰래 옮겨져왔다. 그 후 '파르테논 신전'은 불온한 형태로 수세기 동안 각국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갈등 속에 나누어져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가장 문명화 된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그 품위를 추락시킨다. 어느 국가나 역사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만, 그 불편함을 풀어내는 것은 현 인류가 당연한 숙제이자 필요한 지혜이다. 현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의 '파르테논 신전'은 본래 아테나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건축되었다. 이 작품은 디지털 리유니피케이션으로 흩어진 조각들을 한데 모아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과정을 현현하며,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찬란한 영광을 위해 지어진 '파르테논 마블스' 그 자체의 시점에서 영광을 회복하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가능케하는 화해를 그려낸다.

작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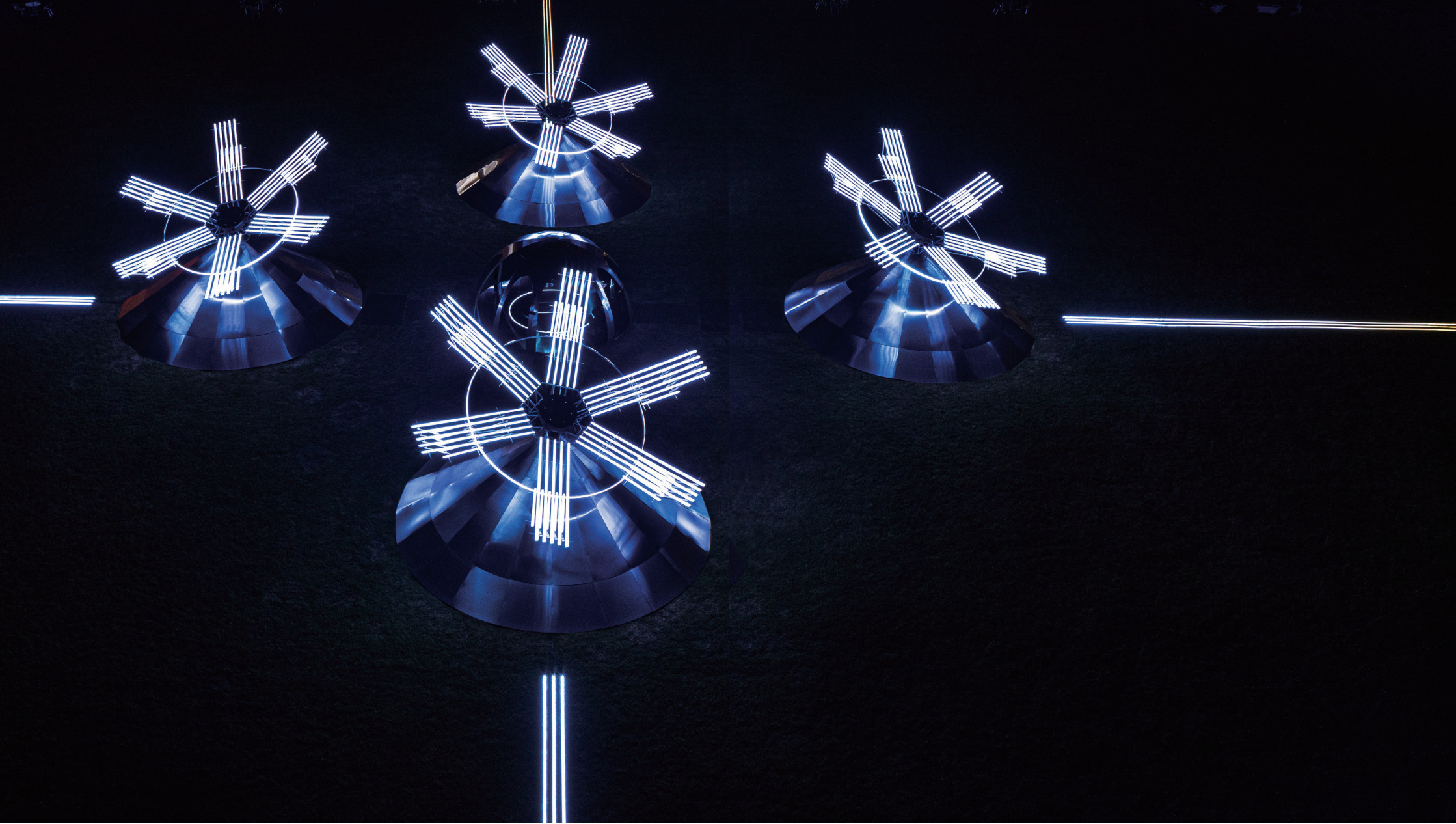
대규모 미디어 맵핑, 설치를 하는 장지연은 조소 베이스의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역사적인 조각이나 이미지를 가상공간에서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등 3D 데이터로 구현하고 멈춰있던 오브제에 서사를 투영한다. 장지연의 "움직이는 조각"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멈춰있는 시간성과 공간의 절대성을 해체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결함(Digital Unification) 하여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가상과 현실 사이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Reconciled Glory

DAPHNE JIYEON JANG

<Reconciled Glory> focuses on the tensions between the nations of Britain and Greece surrounding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y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The Parthenon Marbles, better known as the "Elgin Marbles", were smuggled into Britain during the Ottoman Empire and currently draw the largest audiences in the British Museum. Since then, the Parthenon has been existing in a disquieting position, torn between centuries of conflict, with each country obstinately sticking to its viewpoint. We now live in the most civilized society, but insatiable human greed undermines our dignity. Conflicts emerge as a result of history in any country, but addressing those inconveniences is the work that the current human race faces and the wisdom it needs. The 'Parthenon', in its present imperfect state, was originally constructed to glorify Athena. "Reconciled Glory" reflects the process of reuniting the scattered elements of the original meaning through "Digital Reunification", and recovering the splendo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henon Marbles' itself, which was erected for the dazzling glory that belongs to no one and the convergence of art and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bring about reconciliation.

Daphne Jiyeon Jang is a sculpture-based media artist who specializes in large-scale media mapping and installations. A historical sculpture or image is implemented in 3D data in virtual space, by such means as 3D modeling and animation, and a narrative is projected onto a stationary object. Jang's "Moving Sculptures" deconstructs the absoluteness of time and space, which still remain in different moments, unites them in the digital world(Digital Unification), and crafts a story between the virtual world and reality through a media façade and projection mapping.



07

Interplanetary Light Code - Model 2

IVAAIU CITY

07

Interplanetary Light Code - Model 2

IVAAIU CITY

작품위치 @컬처파크

아티스트 투어 5월 27일 금요일 11:00 - 12:00 @컬처파크

특잇-미 5월 27일 금요일 13:00 - 14:00 @컬처파크

아티스트 연구실 5월 27일 금요일 14:00 - 15:00 @컬처파크

작품소개

인류가 마주한 새로운 우주 시대의 소통을 위해 고안된 빛과 구조의 언어인 "Interplanetary Light Code"는 IVAAIU CITY에 의해 시작된 실험적 언어 시스템이자 뉴미디어 랜드 아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문자를 물리적 구조의 특정 구성들과 빛의 패턴의 특정 시퀀스들로 부호화 시키는 프로젝트이다. 대지에 입혀진 거대한 메시지들은 우주 항공체에서도 인지가 가능하게 구축되어 인류의 새로운 우주 탐험의 과정을 돕는다. "Interplanetary Light Code - Model 2"를 체험하는 관객은 중앙에 위치한 파빌리온에 도달하여 스스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한다. 메시지는 구조의 형태와 빛의 패턴으로 부호화되어 새로운 랜드 스케이프를 만든다. 그리고 이 랜드 스케이프는 상공에 위치한 우주 항공체에서 인지 가능한 메시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관람객은 이 메시지를 직접 읽을 수 없고 주변의 구조의 형태와 빛의 발산으로만 인지한다. 하지만 자신의 메시지가 상공의 어떤 존재에게 읽힌다는 설레임을 갖게 한다.

작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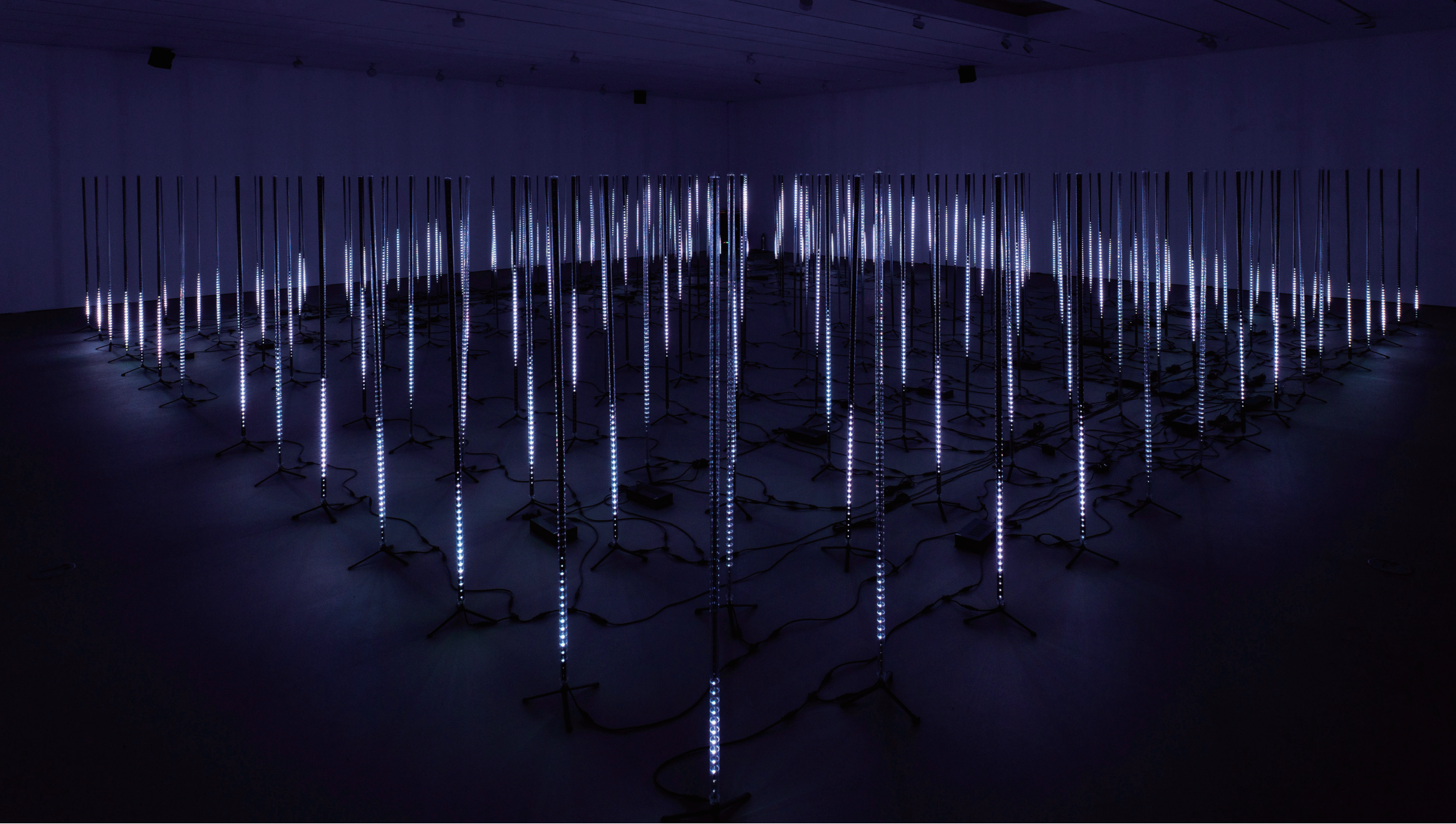
IVAAIU CITY는 서울과 도쿄를 베이스로 활동하는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스 그룹이다. 도시계획/건축/음악 이동욱, 시각예술/연출 신양호, 뉴미디어 박성수, 건축 소한철, 음악 Hiroto Takeuchi 5인의 다양한 필드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현대의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예술적 이상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미래의 도시적 원형에 대한 작업들을 이어오고 있다.

Interplanetary Light Code - Model 2

IVAAIU CITY

The "Interplanetary Light Code", a language of light and structure designed to communicate the new universal era the mankind is facing, is an experimental language system and New Media Land Art Project initiated by IVAAIU CITY. This project aims to encode text characters as standardized physical, structural compositions and lighting sequences. The enormous messages laid upon the earth are also perceptible from spacecraft and help mankind in the process of new universe exploration. Audiences attending "Interplanetary Light Code - Model 2" visit the central pavilion and enter their messages. To develop a new landscape, this message is encoded in the shape of the structure and the pattern of light, and this landscape exists in the shape of a recognizable message from spacecraft in the sky. Because audiences are only aware of the shape of the surrounding structures and the light diffusion, they are unable to read the message immediately. They are, nevertheless, delighted that their messages are being read by extraterrestrial entities in the skies.

IVAAIU CITY is a new media creators group consisting of multi-disciplinary members from Seoul & Tokyo. Urban planner Donguk Agos Lee, visual artist Yangho Shin, new media Sung-Su Park, architect Hancheol So, and musician Hiroto Takeuchi. Artists from five different disciplines have collaborated to construct metropolitan archetypes of the future in which modern technology and new aesthetic values collide and coexist.



08

whiteout

korinsky/seo x Orhan "aib" Kavrakoglu

08

whiteout

korinsky/seo × Orhan "aib" Kavrakoğlu

작품위치 @아트 스페이스

아티스트 투어 5월 22일 일요일 11:00 - 12:00 @아트 스페이스

톡잇-미 5월 22일 일요일 13:00 - 14:00 @아트 스페이스

작품소개

자연과의 공생 혹은 멸종의 갈림길에 선 지금, 미래에 대한 인류의 접근 방식에 대해 담론하고자 빛으로 이루어진 인공 밀밭 위에 유토피아적 미래와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린다. 제너레이티브 한 빛으로 바람과 들판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사운드를 통해 작품을 전개한다. 자연의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불편한 소리가 교차하고 증폭하다 폭발하는 빛과 함께 'whiteout'의 절정을 맞이한다. 극지極地에서 천지가 온통 백색이 되어 방향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whiteout'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 인간이 지구에서 완전히 지워져버린 상태, 또는 인간이 자연과의 공생을 통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백지상태를 상징한다. 'whiteout'은 다양한 감각적 연관성을 자극하며 인간 존재의 희망과 절망을 다룬다. 그 안에 자연, 미학, 유토피아, 노스탤지어, 혐오, 공포, 죽음, 디스토피아가 뒤섞이고 관객은 양가적兩價的 감정 속에서 공포와 안도 사이의 여정을 반복한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 기저에는 보다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이 깔려있다.

작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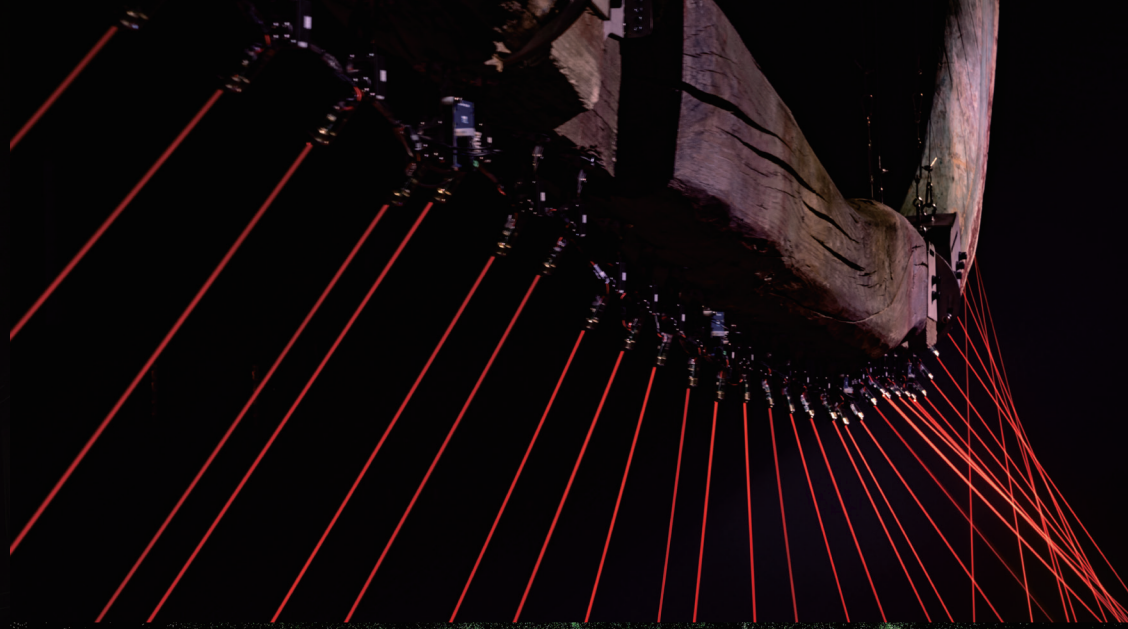
베를린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korinsky/seo는 바이오필리아라는 주제를 토대로 자연의 유기적 움직임 소리, 빛, 움직임으로 왜곡하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변형한다. BOZAR - Centre for Fine Arts, Melbourne Biennial, Ars Electronica, Kraftwerk Berlin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2022 ZERO1NE CREATOR에 선정되었다. 이번 작업은 다학제적 접근법을 통해 이스탄불의 Orhan "aib" Kavrakoğlu와 협업하였다.

whiteout

korinsky/seo × Orhan "aib" Kavrakoğlu

At the crossroads of symbiosis with nature or extinction, korinsky/seo weaves a utopian/dystopian future on an artificial wheat field of lights to examine humanity's approach to the future. The work visualizes a swaying field in the presence of wind using generative light patterns. The visual aspect develops following the sound. Starting with the sounds of nature, increasingly discordant sounds intersect, amplify and reach the climax of 'whiteout' with exploding sound and light. 'whiteout' - a state in which the earth and the sky become all white in the polar regions causing loss of sense of direction, could symbolize a confused mental state of mankind facing today's problems, a state in which humans have been completely wiped out of existence from the earth, or a clean slate for starting over from the beginning through the symbiosis of human and nature. 'whiteout' stimulates various sensory connections and deals with the hopes and despair of human existence. Nature, aesthetics, utopia, nostalgia, aversion, fear, death, and dystopia merge imperceptibly, and the audience repeats the journey between fear and relief in ambivalence. Underneath the dark and heavy atmosphere of the work lies the human instinct to long for a better future.

korinsky/seo - based in Berlin and Seoul, working with the topic of biophilia - distorts and transforms organic movements of natural phenomena with sensual interventions of sound, light and movement and confronts the audience with an altered reality in an ultimately physical way. Their works have been exhibited at BOZAR - Center for Fine Arts, Melbourne Biennial, Ars Electronica, Kraftwerk Berlin, among others and they have been selected as the 2022 ZERO1NE CREATOR. For this work, they have collaborated with Orhan "aib" Kavrakoğlu of Istanbul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09

Organotopia (Audio visual live performance)
Organotopia .that whales walk at whales (Installation)
oOps.50656

09

Organotopia (Audio visual live performance)

Organotopia .that whales walk at whiles (Installation)

oOps.50656

작품위치 @크로마

라이브 퍼포먼스 5월 21일 토요일 15:00 - 16:00, 19:00 - 20:00 @크로마

5월 28일 토요일 16:00 - 17:00, 19:00 - 20:00 @크로마

5월 29일 일요일 16:00 - 17:00 @크로마

아티스트 투어 5월 28일 토요일 11:00 - 12:00 @크로마

특약-미 5월 28일 토요일 13:00 - 14:00 @크로마

작품소개

<오가노토피아> 동시대 결핍된 자연의 감각들을 되돌아본다. 퍼포먼스와 설치로 구성된 이 작업은 우리가 머무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더 깊이 관계하는 세계를 질문한다. 퍼포먼스는 한국문화재청이 지정된 문화재, 산림의 풍경과 자연의 소리들을 재구성한다. 이들은 빛과 사운드가 되어 연주되고, 퍼포먼스 안에서 유행하고 흔재되며 시간의 자국을 남긴다. 작은 단위의 움직임으로 작곡한 사운드와 포인트 클라우드로 구현한 자연과 문화재, 건축물들은 서로 동기화되어 시간과 공간을 만든다. 입자들의 운동성은 하이퍼 리얼리티와 리얼리티 사이의 틈새(場)를 열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한다. 설치작품 <오가노토피아 : 때때로 고래는 걸어 다닌다>는 고목의 고유한 시간과 감각할 수 있는 빛과 보이는 빛이 내뿜는 시간의 궤적들이 무한한 감각으로 흘러가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오가노토피아>의 세계관에 또 다른 현재를 불러낸다. 고정된 시간성이 사라진 <오가노토피아>는 인간-도시-자연 그리고 비물질, 가상과 실제, 안과 밖의 '시-공' 공존하는 다중적이고 동시적 시점을 갖는 풍경이 된다.

작가소개

oOps.50656은 유기적 운동성, 비물질의 시간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자연, 행성,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다학제 연구하고, 동시대 결핍된 경험의 시공을 상상하는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제너러티브 아트, 몰입형 설치를 선보인다. 문규철과 황선정 두 작가로 구성된 oOps.50656은 동시대 컴퓨팅 기술과 제너러티브 아트, 알고리즘 작곡 방식과 모듈러 신스, 자연적 사운드를 재료로 이것들이 유기적 (organic)인 움직임(movement)을 부여하여 시-공간에 고유한 시차를 만들고, 다감각적 추상 경험의 순간을 제안한다.

<오가노토피아>

연출, 감독, 사운드, 비주얼, 프로그래밍 oOps.50656

퍼포머 : 모듈러신스, 비주얼 oOps.50656

바이올린 방우리 오보에 정유진 첼로 김누리

공동참여 배명현

<오가노토피아. 때때로 고래는 걷는다>

(혼합재료설치)

크리에이티브, 컴포지션 oOps.50656

파브리카이터 김준수

기술자문 민찬욱

크리에이티브, 컨셉, 프로덕션 oOps.50656(문규철, 황선정)

프로듀서 이소영

제작지원 대한민국문화재청

특별감사 밀라녹 알렉산드라, 박태준, 한솔, 김근우, 박진영

김정현, 이정민

Organotopia (Audio visual live performance)

Organotopia .that whales walk at whiles (Installation)

oOps.50656

The Oganotopia is a review of contemporary people's impoverished natural senses.

This work, which consists of a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raises questions about the world in which nature and humans are becoming profoundly intertwined in the time and space in which we live. The performance recreates cultural objects classified by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well as woodland landscapes and natural sounds. They are presented as light and sound, swimming and mingling throughout the performance, leaving traces of time. The sound, constructed in small pieces, and the nature, cultural objects, and structures represented by point clouds are coordinated to create sensations of time and space. The motility of particles opens up the gap between hyper-reality and reality, connecting the present and the past. The installation work <Organotopia .that whales walk at whiles> generates moments in which the unique time of an ancient tree and the time trajectories released by sensible and visible light run infinitely, and another present is summoned into the perspective of Organotopia. Where fixed temporality has vanished, <Organotopia> becomes a landscape with multiple and simultaneous viewpoints, where humans-city-nature and immaterial-virtual-real, and 'time-space', inside and beyond, coexist.

Organic motility, non-material temporality, and human interactions are the subject of oOps.50656. Its multidisciplinary research explores the relationship of nature, planets, and humans with technology, and it delivers an audiovisual performance which imagines a lack of experience from the same period, generative art, and immersive installations. oOps.50656, a collaboration between two artists, Moon Gyu-chul and Hwang Seon-jeong, uses contemporary computing technology, generative art, algorithmic composition, modular synths, and natural sounds to breathe organic movements into them, creating distinct zones in time/space and offering moments of multisensory abstract experiences.

<Organotopia>

Concept, Direction, Music, Creative visuals,

Programming oOps.50656

Performer : Modular synth, Visual oOps.50656

Violin Woori Bang Oboe Yoojin Joung Cello Nuri Kim

Co-participant MyeongHyun Bae

<Organotopia .that whales walk at whiles>

(Mixed media installation)

Concept, Composition, Production oOps.50656

Fabricator Junsoo Kim

Creative technology Chanwook Min

Creative, Concept, Direction, Production

oOps.50656(Gyuchul Moon, Sunjeong Hwang)

Producer Soyoung Lee

Production support Culture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al Thanks to Aleksandra Malaniuk, Taejun Park,

Soul Han, Geunwoo Kim,

JinYoung Park, Jeonghyun Kim,

Jeongmin Lee



Signal

Psients × Jeffrey Kim

작품위치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아티스트 투어 5월 26일 목요일 11:00 - 12: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톡잇-미 5월 26일 목요일 13:00 - 14: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아티스트 연구실 5월 26일 목요일 14:00 - 15:00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작품소개

Signal은 미생물학과 음악의 교집합으로, 나노 테크놀로지로 살아있는 효모세포를 포획하여 세계 최초로 연주가 가능한, 살아있는 음악 재생장치를 구현한 미디어아트이다. 해당 '바이오 디지털 악기'는 전자 음악을 다루는 아티스트, Psients가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생물 중 하나인 효모세포에서 발취한 사운드를 음악적 요소로 활용하며 시작되었다. 특수 제작된 바이닐 레코드 내에는 음원으로 활용되는 효모를 직접 살펴볼 수 있으며, 약 15분 동안 진행되는 공연은 빛과 소리의 조합을 통해 세포들 사이의 역동적인 조화를 다양한 스케일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은 관람객들을 미생물학의 새로운 영역과 경험을 인도할 것이다.

작가소개

Psients는 생물학, 음악, 사운드의 교차를 탐구하는 예술가로 전향한 과학자이고 선택의지, 종차별주의, 그리고 생명의 의미를 목상하는 새로운 종류의 '리빙' 악기를 개발하고 연주한다. Jeffrey Kim은 건축 전공을 기반으로 한 전시 공간 디자이너이며, 디지털 콘텐츠의 공간적 조화를 탐구하는 전시 기획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바이닐 디자인 SplinePro 디자인 엔지니어링 자문 황연호

바이닐 레코드 아티스트 Borislav Yordanov, Mike Dixon 음악 믹스 & 마스터 Giuseppe Tillieci

그래픽 디자인 Zalán Szakács 초기 그래픽 작가 Na Ha

컨텐츠 제작 및 기록 촬영 에스카디자인 오브제 제작 김익영

작품 영상 제작 인턴 이원재 작가 에디터 이지윤 작품 설치 인턴 이재아

Signal

Psients × Jeffrey Kim

Signal is a project at the intersection of biology, sound, and music: it is the first iteration of creating an instrument that is alive and also marks itself as the world's first playable, living music media. Signal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 the installation, the object, and the music - and is inspired by biology lab practices of culturing microorganisms in petri dishes and Psients' persistent love for electronic music. The installation transports viewers into the world of yeast cells, inviting them to imagine what such a place might sound like and how biology might be used in music in the future. An obelisk in the center of the installation houses an object that resembles both a petri dish and a vinyl record. Off-white yeast colonies can be found inside the object, and above them - on the object's top surface - are a series of lathed grooves that relay audio signals. What you are hearing are the result of dozens of "bio-digital instruments". They have sampled, processed, and manipulated the sounds of yeast cells contained within the object to create recognizable yet unfamiliar sounds from an entirely new sound source.

Psients is a scientist-turned-artist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biology, sound, and music by producing compositions that incorporate biological sources. His work centers around developing and performing alongside a new class of 'living' instruments to meditate on agency, speciesism, and our relationships with manipulated living systems. Jeffrey Kim is a trained architect and an installation designer. As the head of an exhibition consulting agency, his works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content and space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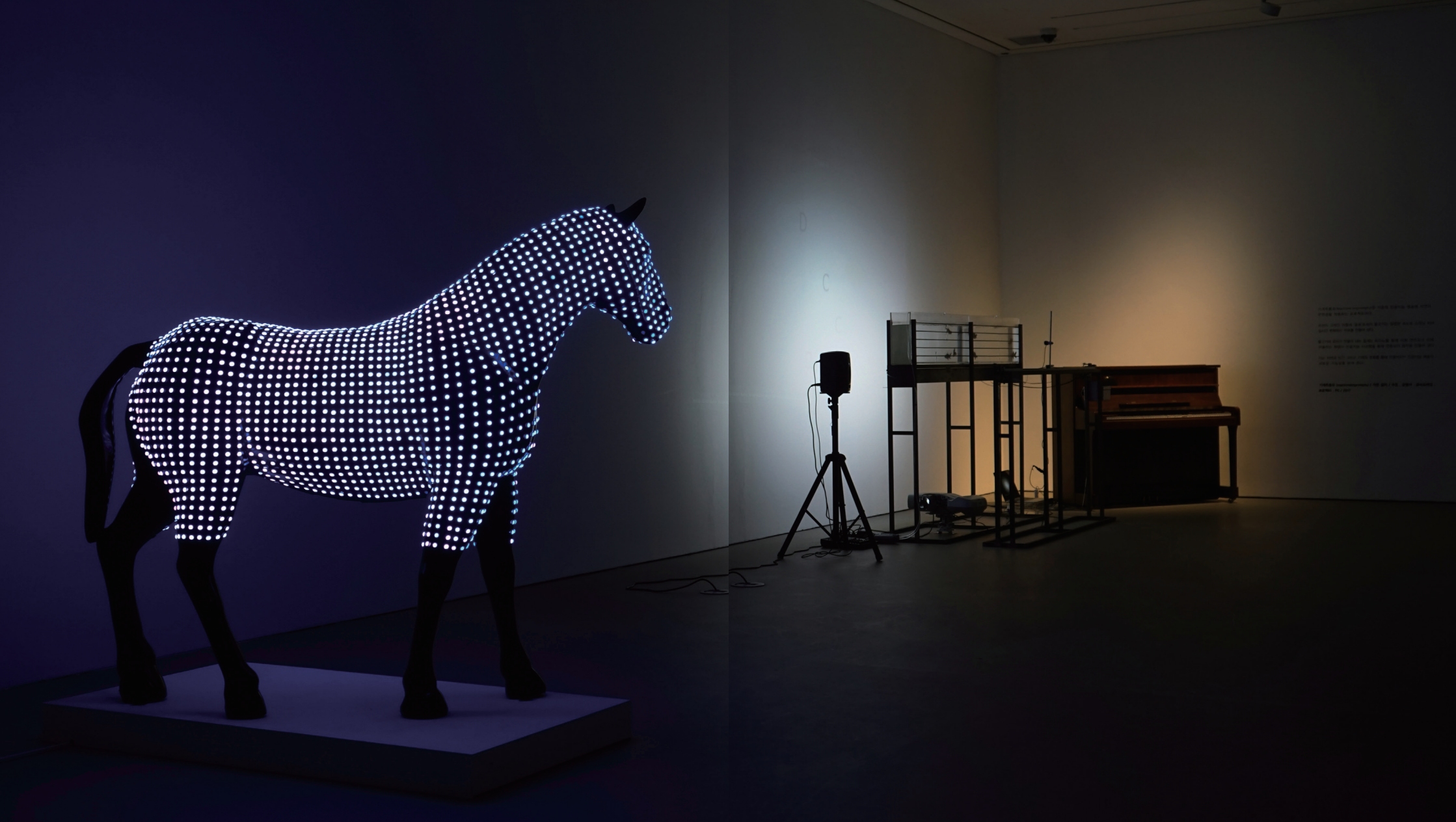
Vinyl Design SplinePro Engineering & Design Consultant Yeon Ho Hwang

Vinyl Lathe Artist Borislav Yordanov, Mike Dixon Music Mix & Mastering Giuseppe Tillieci

Graphic Design Zalán Szakács Preliminary Visualization Artist Na Ha

Content Production & Documentation AESCA Design Fabrication Production Ik Young Kim

Video Production Intern Won Jae Lee Writer/Editor Ji Yoon Lee Installation Intern Jae Ah Lee



서울문화재단 <unfold X - 기묘한 공간>

이재형

작품위치 @아트 스페이스

작품소개

2022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의 초대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은 융합예술 창작작 지원 대표 사업 융합예술플랫폼 <unfold X - 기묘한 공간>을 페스티벌에 전개한다. <unfold X - 기묘한 공간>은 기존에 참여했던 이재형 작가의 작품 페이스 오브 시티, 매트릭스 구부리기, 기계즉흥곡으로 구성된 전시이다. 페이스 오브 시티(Face of City)는 도시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도시를 대표하는 감성의 근거를 해당 지역들의 수많은 SNS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찾아낸다. 그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얼굴의 모호한 표정으로 드러내는 정보 시각화(data visualization) 프로젝트이다. 전시에서는 특정 지역 내에서 추출된 SNS 단어들로 지역 주민들의 감성이 학습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도시의 실시간 감정을 얼굴의 표정을 통해 보여준다. 매트릭스 구부리기(BENDING MATRIX) 시리즈는 빛과 정보들로 이루어진 인터페이스 조각이다. 디지털 정보의 흐름과 빛의 움직임 궤적들이 실제 공간에 가상의 덩어리를 만들어 낸다. 매트릭스 구조를 자르고 구부리는 행위를 통해 실제 공간과의 접점을 만들어 내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구조 간의 중첩을 통해 파생되는 감성들은 조각적 형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다. 동물 조각들의 표면을 감싸는 수 많은 LED 픽셀들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표출하는 감성적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기계즉흥곡(Machine Impromptu)은 기존의 인공지능 예술에 자연의 우연성을 적용하는 프로젝트이다. '오션이 그려진 여황'과 음표로서의 물고기는 일정한 속도로 스캐닝되어 실시간 변화하는 악보를 만들어 낸다. 물고기의 위치가 만들어 내는 음계는 피아노를 통해 자동 연주되고 이에 어울리는 화음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연동되어 음악을 만들어 낸다. 이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계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공지능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다.

페이스 오브 시티(Face of City) / 가변설치 / 실시간 인터랙티브 영상 / 2022

Bending Matrix_Deer / 180 x 170 x 100 / FRP, LED / 2022

Bending Matrix_Horse / 2000 x 165 x 100 / FRP, LED / 2022

기계즉흥곡(Machine Impromptu) / 가변 설치 / 수조, 금붕어, 금속프레임, 프로젝터, PC / 2017

작가소개

이재형은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미디어아트를 공부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오고 있다. 2009년 시작된 BENDING MATRIX 시리즈는 LED를 활용한 정보 조각의 형태로서 전시 외에도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왔으며 제주국제공항의 <희망아래서>라는 고래 형상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시작된 AI 프로젝트는 도시감정 프로젝트인 <페이스 오브 시티>, AI 사운드 프로젝트 <기계즉흥곡> 등이 있다.

협업 박정민(개발자)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unfold X - odd space>

Lee Jaehyung

In response to the 2022 Paradise Art Lab Festival's invitation,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unfolds" an art project from its major art support business, Convergent Art Platform, <unfold X - odd space>. <unfold X - odd space> is an exhibition composed of artworks of Lee Jaehyung, a former participant. It presents his 3 pieces of work, 'Face of City', 'BENDING MATRIX' and 'Machine Impromptu'. 'Face of City' talks about city emotion. It searches for the evidence of sensitivity that represents the city by analyzing social media data of that specific area. It is a data visualization project which presents its result through changing ambiguous facial expressions in real-time. This work uses data of texts in social media from a specific city and analyzes them with trained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e emotions of local residents. The result visualizes the city's emotion through facial expressions. 'BENDING MATRIX' is a piece of an interface built with a series of light and data. The stream of digital data and trace of light travel creates virtual mass in real space. By cutting and bending the structure of the matrix, it creates a point of contact with the real space. The sensitivity derived from piled digital and analog structures makes the fragmental structure alive. Numerous LED pixels, covering the animal sculpture display diverse visual contents and work as an emotional interface. 'Machine Impromptu' is a project, application of nature's coincidence to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t. Fishbowl with five lines and fish as notes are scanned at a constant speed to produce real-time changing scores. by the location of the fish is automatically played through the piano, and the chord is linked throug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to create music. This work represents the new possi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 created through the harmony of nature, humans, and machines.

Face of City / Variable Installation / Live Interactive Video / 2022

Bending Matrix_Deer / 180 x 170 x 100 / FRP, LED / 2022

Bending Matrix_Horse / 2000 x 165 x 100 / FRP, LED / 2022

Machine Impromptu / Variable Installation / Water tank, Goldfish, Metal frame, Projector, PC / 2017

Jaehyung Lee Studied art and media at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in Seoul. He continuously presented his project through many different types of mediums. Since 2009 BENDING MATRIX series had been shown as a form of informed sculpture with LED and He has carried out a number of public art projects. And one of his signature artworks is <Under the Hope>, a shape of a big whale at Jeju International Airport in South Korea. He currently working on AI projects since 2014, which includes <Face of City>, a collection of the emotion of the city, and <Machine Impromptu>, an AI sound project.

Collaboration Park Jungmin(Developer)

FESTIVAL INFORMATION



PARADISE ART LAB FESTIVAL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일시 2022년 5월 20일(금) - 5월 29일(일)
 월요일 - 금요일 | 11:00 - 19:00 *야외 작품의 경우 21:00까지 관람 가능
 토요일 - 일요일 | 11:00 - 21:00
 11개 작품 상시 관람 가능

장소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컬처파크, 크로마 / 크로마 스퀘어, 플라자 / 아트 스페이스

관람료 Free | 무료입장 *전체 관람가

www.paradisearlab.kr

Instagram @paradise_cultural_foundation



KIDS LAB

어린이 대상 아트 & 테크 체험 프로그램

KIDS PROGRAM

어린이들을 위한 10작품, 10교실

페스티벌 기간동안 매일매일 진행되는 키즈 프로그램.
 VR 키트 만들기, 인체 감지 로봇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GONG : CIRCULAR

스튜디오 아텍 STUDIO ARTECH

홀로그램 프로젝션 기술을 활용하여 원형 스크린 안의 실재하지 않는 공간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의 여정을 떠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기술 협력 : 파나소닉 코리아 PANASONIC KOREA

*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ESTIVAL INFORMATION



BUSKING

주말마다 잔디밭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뮤지션의 음악 버스킹

일시 2022년 5월 20일(금) - 5월 29일(일)

장소 컬처파크(야외 잔디밭)

비용 무료

라인업

김제형	5월 20일(금)	15:00
제이유나	5월 21일(토)	17:00
CHS	5월 22일(일)	15:00
라쿠나	5월 22일(일)	17:00
헤온	5월 28일(토)	15:00
프롬	5월 28일(토)	17:00
THE GOOD DAYS BOYS	5월 29일(일)	15:00
위아더나잇	5월 29일(일)	17:00



PAL TALK

2022 PAL 페스티벌의 주제 'CROSSING'에 대한 스타 작가의 토크 프로그램

일시 2022년 5월 21일(토) - 5월 22일(일) | 16:00 - 17:00

장소 컬처파크(야외 잔디밭)

비용 무료

라인업

김초엽	5월 21일(토)
김겨울	5월 22일(일)

FESTIVAL INFORMATION



DANCE PERFORMANCE

아트 인터랙티브 라이브 퍼포먼스

일시 2022년 5월 22일(일) | 14:00 - 15:00

장소 2022 PAL 작품 앞

비용 무료

라인업 무버 예술감독 김설진

* 본 퍼포먼스는 이동하며 진행됩니다.



컬처파크 카크닉

차에서 즐기는 피크닉,
카크닉존에서 페스티벌을 즐기세요.

일시 2022년 5월 20일(금) - 5월 29일(일)
월요일 - 금요일 | 11:00 - 19:00
토요일 - 일요일 | 11:00 - 21:00

장소 컬처파크(야외 잔디밭)



스탬프 투어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서
작품을 보고 스탬프를 모아오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일시 2022년 5월 20일(금) - 5월 29일(일)
11:00 - 19:00

수령 장소 컬처파크 안내데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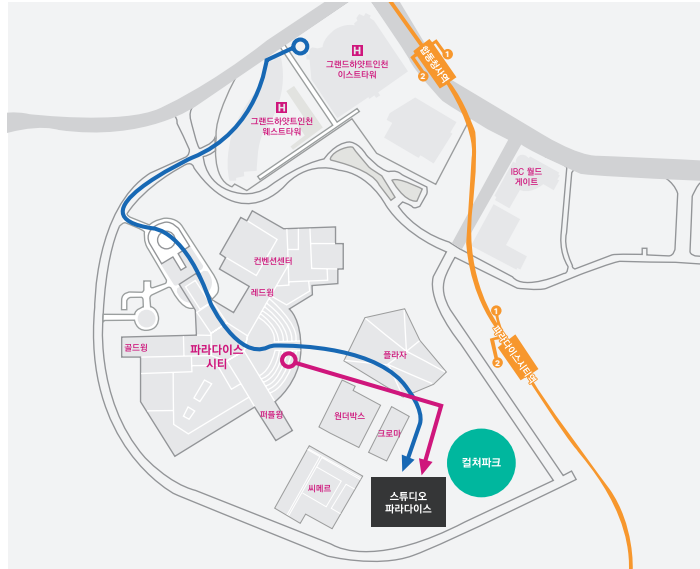
파라다이스시티 F&B

페스티벌을 즐기기 전 든든한 한끼!
파라다이스 F&B 정보를 확인하세요.

*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맛집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OCATION



셔틀버스

배차간격	30분
출발장소	파라다이스시티 (첫차 05:00, 막차 23:00) 인천공항 1터미널 1층 3C (첫차 05:05, 막차 23:05) 인천공항 1터미널 1층 14C (첫차 05:10, 막차 23:10)
운행노선 및 상세	파라다이스시티 > 인천공항 1T 1층 3C 정류소 > 인천공항 1T 1층 14C 정류소 > 인천공항 1T 1층 3C 정류소 > 인천공항 1T 1층 14C 정류소 > 파라다이스시티

승용차

운행노선 및 상세	본 행사의 경우, 무료 입장으로 별도의 주차권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신불IC > 인천국제공항공사 IBC 지하차도 > IBC 월드게이트 오피스텔 방향 좌회전 > 파라다이스시티
------------------	---

지하철+버스

운행노선 및 상세	공항철도 서울역 승차(인천국제공항 방면) > 신불IC > 인천국제공항역 하차 후, 인천국제공항 정류장 방면 도보 이동 IBC > 302, 306A, 306 승차(용유초등학교 방면) > 하얏트호텔 정류장 하차 > 파라다이스시티 방향 도보 이동(약 5분)
------------------	--



PARADISE

CULTURAL FOUNDATION